

‘안전한 등교... 행복한 하교...’

전북교육청, 학생 안전관리 강화 방안 추진... 등하교 안전부터 보건 안전까지 전방위 대책 담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북형 학생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등교부터 하교까지,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 이번 대책은 학부모와 학생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립하게 됐다.

학생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는 등하교 안전부터 학교 내 안전관리 시스템 보강, 학생보호 체계 강화, 급식·보건·환경 안전까지 전방위적인 대책

을 담았다.

우선, 등하교 학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택형 돌봄 교실에서 인계지점까지 학생을 인솔해 보호자에게 대면 인계하고, 모든 학생의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개별 학생에 대한 귀가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초등학교 안심알림이 서비스도 확대 운영하고, 학교 취약 시간 및 취약지구 순회 점검을 위한 학생보호인력을 360여 명에서 430여 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스포츠 내 안전 지도 및 순찰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

전자와 동승 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늘어난다.

학교 내 안전관리 시스템도 보강된다. 학내 사각지대 중심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체력 중심 학생 안전교육도 이뤄진다.

아울러 학생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늘봄 프로그램 강사 채용 시 4대 폭력 예방 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고, 아동학대 사안 인지 즉시 학생 분리 조치를 시행한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학교안

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를 개정 중이다. 이를 통해 보조 인력의 자격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인솔 교사 부담을 경감하며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학생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학기 초 신학기 준비 점검단 및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 등을 거쳐 수립하게 됐다"며 "이번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피드백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지난달 29일 전주 덕진학술림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숲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전북대, 전주 덕진학술림서 나무심기 행사 개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달 29일 전주 덕진학술림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숲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술림 내 무단 경작지 및 불법 점유지를 복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생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전주 학술림을 지역사회에 개방된 '시민의 숲'으로 전환함으로써 도심 속 녹색 쉼터를 확장하겠다는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날 전주 시민 50여명, (사)전북생명의숲, 전북은행(전북은행생태위원회),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아이엠

아이, 생태하천협의회 등이 함께 참여해 전주 덕진학술림 부지 약 600㎡ 면적에 편백나무 400그루, 개나리 300그루를 심었다.

특히 대학과 지역사회, 시민단체가 협력해 산림 생태 복원과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한상섭 학술림장은 "무단 점유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나아가 탄소흡수원 확보를 통해 도시의 기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시숲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계열별 모집 입학 신입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올해 처음 계열별로 입학한 신입생을 위한 맞춤형 전공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2학년부턴 전공을 마음껏 선택하게 되는 학생들이 전공을 보다 면밀히 탐색하고, 이를 통해 진로 설계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 취업진로지원과는 '전공탐색박람회'와 '신입생-재학생 멘토링', '전공탐색 진로동아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전공탐색박람회는 여러 학과의 교수진과 재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전공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입생들은 이 행사를 통해 전공의 특성, 학습 과정뿐 아니라 졸업 후 진로와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까지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다.

전공탐색박람회는 오는 5월 27~28일 이틀간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신입생-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전공선택과 대학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으로, 밀착형 멘토링을 통해 신입생들은 실제 학습 방식, 전공 선택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현장감 있게 배우고,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취업진로지원과는 전공탐색 진로동아리 운영을 통해 같은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심도 있는 학습과 경험을 쌓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 세미나, 프로젝트 참여, 기업체 탐방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 전공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키우고, 향후 구체적인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지난달 31일,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처·국(단)장, 본부장 등 대학 주요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반부패·청렴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북대, '청렴한 대학 문화 정착' 적극 행보 나서

양오봉 총장 주재 '2025년 제1차 반부패·청렴협의회 개최... 올해 추진계획 공유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청렴한 대학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행보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처·국(단)장, 본부장 등 대학 주요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반부패·청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안)을 공유하고, 청렴 실천 포어 공모전의 당선작을 선정했다. 또한 부패 취약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외부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청렴 옴부즈만'을 출범시키고, 전 구성원의 청렴 서약을 진행하는 등 투명한 대학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안)을 공유하고, 청렴 실천 포어 공모전의 당선작을 선정했다. 또한 부패 취약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는 앞으로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실천계획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양오봉 총장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대학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대학이 세계적인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건"이라며 "청렴 실천이 대학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올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접수

전북교육청, 오늘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통해... 저소득층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는 교육활동지원비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304만887원 이하인 가정이다. 수급 자격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에 하면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학교급별 교육활동지원비를 받는다.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지원 받는다.

지원금은 초등학교생 48만7,000원, 중학생 67만9,000원, 고등학생 76만8,000원이다. 지난해 대비 평균 5% 인상된 금액이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또는 보호자(가장)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누리집(e-voucher.kosf.go.kr)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4학년도에 지원을 받고 이번에도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과 동일한 지급수단(신불카드 제외)에 바우처 포인트가 배정된다.

바우처 사용 기한은 2026년 3월 31일까지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된다.

비밀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바우처 배정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신불카드(기명식) 중 선택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취업에 활용 생생형 AI 교육 성료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달 29일 교내 스타센터 전산실습실에서 3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활용하는 생생형 AI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활용 스킬을 넘어 실제 업무에서 AI 협업을 통해 실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생생형 AI 활용법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해 △코딩 자동화 △콘텐츠 제작 △데이터 분석 △챗봇 제작 실습 등이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평소 관심 있었던 생생형 AI 교육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中 예비 유학생 초청 '한국문화체험'

오늘까지 삼례문화예술촌 한옥마을·새만금 등 방문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올해 9월 입학할 중국 예비 유학생 92명을 초청해 한국문화체험을 진행한다.

지난달 30일 입국한 예비 유학생들은 1일까지 캠퍼스 투어를 비롯한 삼례문화예술촌과 한지박물관, 전주한옥마을, 새만금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우석대는 지난달 31일 박노준 총장과 유희태 안주군수, 후홍재(胡勇在) 하북성 정주시육통고등학교장, 리홍카이 허북성 임구시아시아외국어학교 이사장, 왕홍임 산서성 진성현대공업전문대학 이사장, 류홍준 중국 탁구협회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본관 23층 안주·우석 전망대 W-SKY 23에서 예비 유학생 초청 환영식을 개최했다.

박노준 총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대학교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한국문화체험을 통해



우석대학교는 올해 9월 입학할 중국 예비 유학생 92명을 초청해 한국문화체험을 4월 1일까지 진행한다. 사진은 박노준 총장과 유희태 안주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본관 23층 안주·우석 전망대에서 예비 유학생 초청 환영식을 개최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대학에서의 학업 생활이 풍성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희태 안주군수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 자연을 자랑하는 안주군에서 소중한 추억을 쌓길 바라며, 예비 유학생들의 학문과 미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IQAS)'에서 3년 연속 인증대학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바 있으며, 현재 1,5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수학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복지 사각지대 위기학생 지원 힘 모은다

전북교육청, 2025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계획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창조나래 5회의실에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교육복지우선지원 및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3년 시작된 국가정책 사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적 취약성을 예방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해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내에서는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도내 모든 초·중학교와 7개 특성화고를 포함해 총 623개교를 교육복지학교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5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 계획 안내 △2025년도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안내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운영 등에 대한 안내와 협의 등이 이뤄졌다.

/장은성 기자

유아교육진흥원, 사립유치원 신규교사 대상 연수

전북특별자치도유아교육진흥원(원장 강혜정)은 지난달 31일 사립유치원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실용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총 140명의 신규교사가 참여한 이날 연수는 전북교육 핵심 정책 및 미래 유아교육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누리과정 실제와 현장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는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

로 채우는 하루!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사례 △따뜻한 대화로 달라지는 학부모 관계 현명한 소통의 비법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평일 연수 참여가 힘든 사립유치원 교사를 배려해 토요일에 집합연수를 운영하고, 혼합연수(집합연수+원격연수)를 통한 연수 시·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장은성 기자